현대불어 조동사의 재해석

강 주 헌*

Ⅰ. 서 론

전통문법에서 조동사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그 정의가 주로 의미론적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문법에서의 조동사는 시제 temps와 시상 aspect를 나타내는 avoir와 être로 구성되는 조동사 auxiliaire와 소위 준조동사 semi-auxiliaire라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1] 특히 준조동사의 분류에 있어서 주로 의미론적 차이에 그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전통문법학자들마다 준조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이 다르다.[2] 이처럼 조동사의 구분에 있어서 통사론적인 면을 무시하고, 오로지 의미론적인 면만을 근간으로 하여 조동사의 범주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범주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pouvoir가 Modal을 표현하는 조동사에 속한다면 왜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être capable de는 조동사로서 여겨질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3] 그러므로 조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어휘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의미론적 기준에서 그것을 정의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Ⅰ. 1.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불어에서 조동사에 속할 수 있는 어휘가 무엇인가를 순수히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밝혀보자는 데 있다. 현재의 생성이론의 단계인 지배 및 결속이론 Théorie de gouvernement et de liage은 언어의 일반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언어이론보다 그 설명력이 적어도 통사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강사

1) 본 논문에서는 구성상의 편리를 위해서 전통문법에서 조동사, 준조동사로 구분한 것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조동사라 표현하기로 한다.

2) G. R. Roy는 각 전통문법학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조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문법학자들은 avoir와 être를 조동사로 분류하는 데는 일치하지만 준조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다.
G. R. Roy, *Construction à l'analyse du syntème verbal*, Klincksieck, Paris, 1976, pp. 13~19.

3) être capable de가 하나의 어휘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조동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통문법학자들이 venir de, être sur le point de역시 조동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등하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배 및 결속이론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언어의 기본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간과되어질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 중의 하나가 바로 조동사라는 범주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물론 변형생성이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가 행하여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N. Ruwet는 pouvoir, devoir 역시 vouloir와 마찬가지로 통사론적인 형태에서 그 특이성이 다른 동사들과 구분되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단순한 역설로서 위의 두 동사도 vouloir와 마찬가지로 일반동사로 여겨져야 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4] 그렇지만 N. Ruwet가 그 동사들을 조동사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동사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단순성과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제안은 언어학을 과학의 일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엄격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Ruwet의 이에 대한 연구는 진실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이처럼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진 채, 암시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조동사의 설정에 대한 문제를 순수히 통사론적 측면에서 재조명 하여 보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불어에서 조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어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사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 그 조동사의 구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본 논문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불어의 조동사에 속하는 어휘를 통사론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조동사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하게 될것이다. 여기에서는 Benveniste가 보조적 관계 Auxiliarité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세개의 과정[5] 중에서 시간성 temporalité의 관계를 표현하는 avoir와 être 그리고 수동형의 관계——이것을 Benveniste는 특이형태 diathèse로 표현한다——를 나타내는 être만이 현대불어에서 조동사의 범주에 속하며, 양상 modalitè을 표현하여 주는 pouvoir와 devoir는 조동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사론적 측면에서 증명하고자 한다.[6] 이렇게 avoir와 être만이 조동사로 여겨질 수 있다면 이러한 조동사의 범주는 문장 내에서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지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수형도 상에서 Ph매듭에 직접적으로 지배되어지는가, 아니면 SV 매듭에 직접적으로[7] 지배되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4장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살펴보고 조동사의 내적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4) N. Ruwet, *Introduction à la grammaire générative*, Paris, Pon, 1968, pp. 185–188.
5) E. Benveniste: Structure des relations d'auxiliarité,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Gallimard, 1974.
6) J. Dubois (1970)와 M. Gross (1968)는 이러한 동사이외에 aller, venir de 등도 modal로서 조동사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사들도 역시 일반동사들과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러한 취급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7) 문장을 표현하는 상징기호로서 본논문에서는 전치사 préposition: p와 구별하기 위해서 Ph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sv는 동사구 syntagme verbal을 대신하는 기호이다.

Ⅱ. 통사론적 형태의 비교

본 장에서는 과거 전통문법에서 준조동사로 여겨졌던 동사들과 일반동사들의 통사론적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동사들이 준조동사로 여겨질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동사로 여겨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Ⅱ. 1.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준조동사를 조동사의 항목에 넣을 때 생겨나는 다시쓰기 규칙에서의 문제점이다. 우선 pouvoir, devoir 등을 조동사로 여길 때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자.

(1) Pierre a dû manger cette pomme.
(2) Pierre doit avoir mangé cette pomme.
(3) Pierre a mangé cette pomme.
(4) Pierre a eu mangé cette pomme.
(5) Cette pomme a été mangée (par Pierre).
*(6) Cette pomme a eu été mangée (par Pierre).

위의 문장의 생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J. Dubois(1970)와 M. Gross (1968)가 설정한 구절구조규칙을 약간 변형하여 나타내면 위의 문장들의 유도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8]

▲

[9]

(1)의 문장의 유도를 위해서는 Aux→Tps parfait M이 선택되고, (2)를 위해서는 Aux→Tps M parfait가, (4)를 위해서는 Aux→Tps parfait parfait가, (5)를 위해서는 Aux→Tps parfait diathèse가 선택되면 된다. 그러나 (7)의 식으로 (6)을 만들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6)의 생성을 위해서는 (7)의 식에 parfait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은 (1)~(5)의 유도에 대한 설명과 (6)의 비문법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모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면 이 모델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밝혀진다. 즉 (3)에서의 조동사를 설정하기 위해서 Aux의 다시쓰기규칙 우측에 나타나는 두 parfait중에서 어느 것이 선택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모델에 의

8) (7)의 모델은 Chomsky (1957)의 Structures syntaxiqnes의 모델을 불어에 맞도록 변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9) 여기에서 parfait는 Benveniste의 개념에서 시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avoir/être이며, diathèse는 수동태를 이끄는 être이다. 한편 M은 Modal로서 pouvoir, devoir, venir de, aller 등의 동사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Tps는 시제, 인칭등을 표현하는 기호이다.

하면 두 parfait가 동등한 구조적 위치를 지니며 수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의 어느 것이 선택되어져도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이르른다. 그러나 (4)의 경우에서는 두개의 prafait가 모두 선택되어져 있다. 이 경우 두 parfait의 구조적 관계는 직관적인 면에서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10] 그러나 (7)에서는 그러한 직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직관에 연결하여 (3)의 유도를 (7)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필요하여 진다. 즉 (7)에서 (3)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다시쓰기규칙의 우측에 나타나는 수의적 요소들의 선택에 대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 때문에 왼쪽에 먼저 나타나는 요소에 대한 우선권, 혹은 거꾸로 실현의 동사와 더 가까이 있는 우측에 나타나는 요소에 대한 우선권이라는 선택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없이 위의 문장들의 유도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제시되어질 수 있다면 (7)의 모델은 평가적인 단계에 의해서 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는 Chomsky의 1972년(그리고 1975년)에서 제시하였던 모델을 약간 변형하여 다시쓰기규칙을 (8)과 같이 제시하여 보자.[11]

(8) $SV \rightarrow Aux + Sv_1$
$Aux \rightarrow Aux_1(Aux_2)$
$Aux_1 \rightarrow Tps(parfait)\ (M)$
$Aux_2 \rightarrow (parfait)\left(\left\{\begin{matrix}parfait\\diathèse\end{matrix}\right\}\right)$
$SV_1 \rightarrow V + SN$

하지만 (8)의 모델에서도 Aux을 구성하는 Parfait나 Modal은 모두 수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Aux에 존재하는 parfait는 순전히 Modal의 복합시제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조건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6)의 생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6)의 생성을 막기 위해 (8)의 모델에서 Aux_2를 다음과 같이 변경시켜 보자.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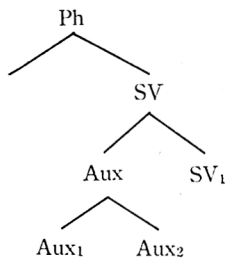

그림 (1)

$$\left(\left\{\qquad\right\}\right)$$

즉 이미 Aux_1 내에서 parfait가 한번 출현하였기 때문에 Aux_2에서 parfait라는 요소를 없앤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는 Aux_1는 Aux_2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우선

10) 4장에서 실질적으로 어 두 parfait는 구조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
11) Chomsky의 본래의 모델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불어는 영어와는 달리 modal도 복합시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Modal과 Tps 사이에 parfait라는 범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Aux_1 내의 parfait 가 Aux_2 내의 parfait 보다 우선권을 지닐 수 있다고 하여보자.[12] 그렇다면 (3)의 경우에서는 Aux_1 의 parfait를 선택하여 유도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6)의 생성도 동시에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델(8)은 적어도 (3)의 유도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의 모델 (7)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 문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10) J'ai eu mangé cette pomme. → Je l'ai eu mangée.
(11) Je dois rédiger les rapports. → Je dois les rédiger.
* Je les dois rédiger.

(10)에서 대명사화 된 cette pomme는 Aux_1의 앞으로 이동된다. 그렇지만 (11)에서는 그 대명사가 Aux_1의 앞으로 이동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며, 오로지 Aux_2의 앞으로 이동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델은 변경되어야 한다. 모델(8)은 Jackendoff(1972)와 Emonds(1976)에서 처럼 M을 포함하는 Aux 은 Ph에 직접적으로 지배되고 Aux_2는 SV에 직접적으로 지배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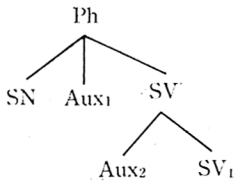

그림 (2)

이 모델에서 문장 (10)에서의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Aux_2의 표현 (9)보다는 (8)의 그것이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ux_1에서 선택된 parfait의 앞으로 대명사가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장 (11)의 경우와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델의 선택도 결국 문장(6)의 생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8)에서 주어진 제약처럼 Aux_1 내의 parfait는 오직 Modal과 관계를 맺는다는 제약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Modal을 조동사의 한 구성요소로 선택한 이론은 어느 것도 기술적이며 설명적인 타당성을 지니면서 문장의 생성 및 분포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Modal로서 다루어져 왔던 동사들은 결코 다른 일반동사들과 비교하여 그 통사론적 형태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써 vouloir와 마찬가지로 pouvoir, devoir, aller, venir de 등도 조동사의 구성요소라기 보다는 동사구(혹은 문장)[13]을 보어로서 취할 수 있는 일반동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12) 이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어떠한 이론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가정에 대한 증명을 찾아 볼 수 없었다. (8)에서 Aux_1는 의무적 출현요소인 반면에 Aux_2는 수의적 출현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무적 출현요소가 수의적 출현요소보다 우선권을 지닌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동사로서 표현되는 모든 요소들은 자체의 주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Chomsky(1981, 1982)의 지배 및 결속이론에서 공범주를 취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Ⅱ. 2. 통사론적 형태의 비교

Ⅱ. 2. 1 먼저 명사구가 대명사화 되어 그것이 움직여지는 장소를 비교하여 보자.

(12) J'espère réussir à l'examen. → J'espère y réussir.
* J'y espère réussir.

(13) Je veux manger une pomme. → Je veux en manger une.
* J'en veux manger une.

(14) Je commence à lire ce roman. → Je commence à le lire.
* Je le commence à lire.

(15) Je vais prendre le déjeuner. → Je vais le prendre.
* Je le vais prendre.

i(16) Je viens de lire ce roman. → Je viens de le lire.
* Je le viens de lire.

(17) Je dois parler à Pierre. → Je dois lui parler.
* Je lui dois parler.

(18) Je peux terminer le travail avant 7 heures. → Je peux le terminer avant 7 heures.
* Je le peux terminer avant 7 heures.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전통문법에서 조동사로 여겨지던 aller, venir de, devoir, pouvoir역시 다른 다른 일반동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동사들 뒤에 나타나는 부정법절속에 포함된 명사구를 전접어 clitique으로 변형시킬 때, 그 전접어가 이동되는 장소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전접어의 이동이라는 통사적 형태가 같다면 왜 의미론적 측면에서 Modal로 정의되는 동사는[14] 조동사로 여겨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에 조동사가 주된 동사와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한다면 왜 전접어는 (15)～(18)의 경우에서 조동사 앞에 까지 이동되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통사론적 측면에서 보듯이 그러한 동사들도 모두 일반동사로써 여겨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Ⅱ. 2. 2. 만약 Ruwet(1968, p. 187)의 제안이 옳다면 하나의 절 proposition에 속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는 오직 하나만 나타날 수 있다.[15] 이렇듯 문법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면에서 비교하여 과거의 문법의 경우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화를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devoir 등의 동사가 뒤의 부정법 동사와 하나의 동사군을 이룬다면 다음 예문들에서 보듯이 하나의

14)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Modal이라는 범주에 대한 정의에 문제가 있다. 즉 Benveniste (1974)가 말한 것처럼 언어학적 측면에서 modal로 여겨지는 것이 필연성 nécessité와 가능성 possibilité라면, 왜 pourvoir, devoir만이 modal로 여겨져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être possible de, être nécessaire de는 왜 modal이 되지 못하는 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러한 이유는 이에 대한 구분이 과거의 전통문법이 품사를 정의할 때 그러하였듯이 의미론적 배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5) 이때 부정을 나타내는 요소는 ne . . . . pas, ne . . . . plus, ne . . . . guère 등의 요소등에 제한된다.

절 속에 부정소사가 두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법의 설정에 있어서 일반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devoir 등의 동사를 일반동사처럼 다룰 필요가 있다.

(19) On ne veut pas ne pas aimer ce film.
(20) Je n'espère pas ne pas réussir à l'examen.
(21) On ne peut pas ne pas aimer ce film.
(22) Il ne devait pas ne pas parler en public.
(23) Elle ne va pas ne pas faire le travail.

이렇듯 devoir 등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속에 부정소사가 두번 나타날 수 있을 뿐아니라, 그뒤의 부정법 동사만이 부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일반동사들과 전혀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24) On veut ne pas aimer ce film.
(25) J'espère ne pas réussir à l'examen.
(26) On peut ne pas aimer ce film.
(27) Il doit ne pas parler en public.
(28) Elle va ne pas faire le travail, mais autre chose.

위와같은 현상을 devoir 등의 동사가 조동사로 취급된다면 (9)～(28)에서의 부정소사 출현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힘들다.

Ⅱ. 2. 3 세번째 증거로써 주된 동사 뒤에 나타나는 부정법 형태의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사구의 대명사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29) Espèrez-vous aller au cinéma? –Oui, je l'espère.
(30) Voulez-vous partir pour Paris? –Oui, je le veux.
(31) Doit-il effectuer ce travail. –Oui, il le doit.
(32) Paul peut-il conduire la voiture? –Oui, il le peut.

이처럼 pouvoir, devoir 동사는 뒤의 부정법절을 대명사화 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일반동사들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이러한 부정법을 대신한 전접어—중성대명사—의 형태가 le라는 점을 보아[16] devoir, pouvoir 역시 espérer, vouloir와 마찬가지로 직접목적보어를 이끄는 직접타동사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ller 와 venir(de)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성대

16) (31)과 (32)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른 중성대명사를 사용한 (i)～(iv)의 대답은 올바른 문장이 되지 못한다.
*(i) Oui, il y doit.
*(ii) Oui, il en doit.
*(iii) Oui, il y peut.
*(iv) Oui, il en peut.

명사로의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성이 aller와 venir(de)가 일반동사라는 가정을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불어의 동사들 중에서는 이러한 중성대명사로의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동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7]

(33) Vas-tu dire cette chose? –*Oui, je le vais.
(34) Max venait-il de poser ces fleurs sur la table?
–*Oui, je le venait (de).
(35) Jean semble-t-il être malade? –*Oui, il le semble.
(36) Jean paraît-il avoir compris? –* Oui, il le paraît.[18]

Ⅱ. 2. 4.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대동사 pro-verbe라고 불리우는 le faire의 허용여부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자. 이러한 le faire의 허용여부에 대한 비교에서도 역시 devoir 등의 동사들은 다른 일반동사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devoir, pouvoir 등의 동사가 다음 부정법 동사와 하나의 동사군을 이룬다면 이러한 대체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19]

(37) Grimper, les chèvres adorent le faire.
(38) Travailler, on veut le faire,
(39) Voyager, Paul pourra le faire ce matin.
(40) Rédiger ce rapport, Jean doit le faire.
(41) Dire quelque chose, Dubois va le faire.
(42) Poser ces fleurs sur la table, Géro venait de la faire.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부정법절을 대신하는 le faire는 앞의 주된 동사가 타동사, 혹은 자동사이던 관계없이 또 그것이 주된 동사의 직접목적보어로 기능하는가 혹은 간접목적보어로 기능하는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예문들은 위의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43) a. Voyager, Paul s'en gardait.
b. Voyager, Paul se gardait de le faire ce matin.

17) Kayne (1977)은 부정법절이 보어절로 나타나는 경우, 이 형태는 동일주어삭제규칙, 혹은 주어상승규칙이라는 변형을 통해서 유도된다고 하였다. 특히 주어상승규칙에 의해서 유도되는 부정법절은 중성대명사로 변형되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R. Kayne, *Syntaxe du français*, Paris. Le Seuil, 1977. pp. 241–247.

18) 이 문장들은 해석은 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때의 해석이 être malade와 avoir compris를 대신한다기 보다는 sembler (paraître) Adj에서 Adj를 대신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le가 부정법절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비문법적인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19) 4장에서 le faire는 전통문법에서 말하듯이 pro-verbe인가. 아니면 좀 더 큰 범주인 pro-sv인가에 대해서 x'-통사론을 빌어 좀 더 정확히 표현할 것이다.

(44) a. Voyager, Paul s'y mettait.
b. Voyager, Paul se mettait à le faire ce matin.

Ⅱ. 2. 5. 다음의 예증으로서 선택되어질 수 있는 것은 Benveniste가 언급한 조동사적 기능 비역전성 원칙 principe de non-réflexivité de la fonction auxiliante에 의해서 modal에 관계되는 동사를 두개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대예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Benveniste는 위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의 비문법성을 설명한다.

*(45) Il doit devoir chanter.
*(46) Il peut pouvoir venir à l'heure.

그렇지만 불어의 언어현상에서는 전통문법과 지금까지의 문법이 modal로 여겨오던 동사가 연속적으로 두번 나타나는 문장은 많이 발견된다. 다음의 예문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다.

(47) Il doit pouvoir répondre à cette question.[20]
(48) Il peut devoir travailler.
(49) Il va devoir partir.[21]
(50) Il vais être en train de travailler quand tu vas arriver.

이러한 문장들에 대한 설명은 문장 속의 모든 동사가 일반동사이고 그 뒤의 부정법 형태로 나타나는 동사는 앞의 동사에 대한 보어절로서 기능한다고 한다면 앞의 언어현상을 일반성을 지니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동사가 일반동사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45)～(46)의 비문법성에 대한 설명은 다른 언어현상을 빌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51) Pierre espère espérer réussir à l'examen.
*(52) Pierre veut vouloir avoir un stylo.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다른 어떤 동사들도 같은 동사가 두번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

20) Benveniste는 이 예문처럼 Modal에 속하는 두개의 동사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 동사의 계열적인 어가 valeur paradigmatique—즉, pouvoir는 가능성, devoir는 필연성—는 이 둘의 종합적인 연결 liaison syntagmatique이 되었을 때 그대로 존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47)의 경우에서는 필연성보다는 높은 가능성 probabilité을 표현한다고 Benveniste는 말한다, 하지만 이 동사들의 조동사적 역활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E. Benveniste: Structure des relations d'auxiliarité,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Gallimard, 1974, p. 191

21) J. Dubois (1970, p. 110)는 (49)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aller는 modal의 조동사인 반면에 devoir는 본래의 의미를 지니는 일반동사로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찰에서 부터 J. Dubois (1969: p 118–122)는 devoir와 pouvoir는 한편으로는 일반동사적 특성을 띠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동사적 특성을 띄는 어휘라고 한다. 즉 devoir가 필연성을 의미할 때, 그리고 pouvoir가 avoir la force de의 의미를 지닐때는 일반 동사적 속성을 지니며, 반대로 devoir, pouvoir가 차례로 확실성 probabilité, 가능성 possibilité의 의미를 지닐 때는 조동사의 속성을 띈다고 하였다.

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45)～(46)의 문장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45)～(46)의 비문법성을 연속적인 modal 동사의 허용에 대한 규제로서 설명하였듯이, 이번에는 (51)～(52)의 문장을 위해서 다른 일반동사들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동사를 일반동사로 여긴다면—물론 parfait를 이끄는 avoir와 diathèse를 이끄는 être는 제외 위의 제약은 하나로서 충분할 것이다.[22]

Ⅱ.2.6. 이번에는 비인칭주어 il과 관련된 동사적 형태를 살펴보자. 이미 Kayne(1979)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것처럼 다음의 예문b에 나타나는 문장들은 예문a에서 부터 SN이 우측이동한 후, 그 빈자리에 비인칭주어 il이 삽입된 문장이다.

(53) a. Trois hommes sont arrivés.
b. Il est arrivé trois hommes.
(54) a. Plusieurs soldats sont venus.
b. Il est venu plusieurs soldats.
(55) a. Cinq francs me manquent.
b. Il me manque cinq francs.

이러한 명사구 우측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동사와 주어상승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sembler 계열의 동사가 같이 쓰이면 (56)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56)은 (57)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56) Il semble arriver trois hommes.
(57) ($_{sn}$) semble (p′ comp (p trois hommes arriver))
→ déplacement à droite du SN
($_{sn}$) semble (p′ comp) (p t arriver trois homme))
→ Insertion de "il"
($_{sn}$) semble (p′ comp (p il arriver trois hommes))

위 예문처럼 적어도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동사는 비인칭동사, 혹은 비인칭구문을 형성

22) 그렇지만 (i)에서 보는 것처럼 aller와 같은 동사가 두번 연속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있다.
(i) Je vais aller le chercher. 이 경우에서 II. 3에서 명확히 다루겠지만 aller는 두개의 어휘 항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즉 앞의 aller는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동사인 반면에 뒤의 aller는 순수한 운동 동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변형생성문법은 동일주어 삭제규칙(Equi)라는 변형을 도입하였지만, G.L. 이론에서는 부정법 동사의 주어 PRO를 해석하는 통제이론 théorie de contrôle을 도입한다. (i)의 유도과정을 G.L. 이론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_{sn}$] vais [P′ comp [p je aller [p comp [P′ PRO le chercher]]
→주어상승규칙 Montée du sujet
→Je vais [p t aller [P′ comp [p PRO le chercher]]
즉 앞의 aller는 sembler 처럼 P′ 탈락을 인정하는 동사류에 속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동사를 지배하는 동사에 대한 주어로서 비인칭주어 il을 허용한다[23] 이처럼 devoir, pouvoir등의 동사가 이러한 sembler동사와 같은 구문을 형성한다면 적어도 이 동사들은 조동사로 여겨지기 이전에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자동사로서 여겨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동사가 자동사로 여겨져야 하는 이유는 Ⅱ. 2. 3에서 보았듯이 중성대명사 le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Kayne(1977)이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동사는 중성대명사를 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동사들이 자동사이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58) Il peut arriver trois hommes.
(59) II doit arriver trois hommes.
(60) Il va arriver trois hommes.
(61) Il vient d'arriver trois hommes.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의 동사적 형태를 살펴 보았을 때 devoir, pouvoir등의 동사가 다른 일반동사들과 따로 구별되어 다른 특별한 범주를 이룬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동사들이 뒤이어 나오는 동사와 함께 의미적 상호관계가 있다는 이유때문에 더 큰 하나의 동사군을 이룬다고 가정한다면 위에서 제시된 다섯가지의 동사적 형태를 일관성있게 설명하기 힘들어진다. 이처럼 devoir등의 동사가 일반동사처럼 여겨진다면 문제시되어져야 할 것은 이러한 동사들의 통사구조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Ⅱ. 3. 통사구조

Ⅱ. 2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aller와 venir(de)는 자동사로서 여겨지는 동시에 sembler와 거의 같은 특성을 보인 반면에 pouvoir, devoir는 Ⅱ. 2. 3과 Ⅱ. 2. 6에서 보듯이 이중적인 통사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Ⅱ. 2. 3에서 pouvoir, devoir는 espérer, souhaiter, vouloir등의 동사처럼 동일주어삭제규칙—혹은 주어통제원리가 적용되는 동사—이 적용되는 동사로서, 중성대명사와 화합될 수 있는 타동사로 여겨진 반면에, Ⅱ. 2. 6에서는 sembler처럼 주어상승규칙이 적용되는 자동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 특성의 이중성이 devoir등의 동사를 일반동사로 여긴다는 가정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다시말하면 devoir, pouvoir의 이중적인 통사구조는 이 동사들의 의미의 이중성에 의하여 정당화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Chomsky(1977)에서 처럼 의미론적인 면의 고려는 통사규칙이 만족시켜야 하는 경험적 타당성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빌어, devoir, pouvoir의 의미의 이중성은 통사규칙의 이중성에서 유도되어진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24]

23) Kr. Sandfeld, *Syntake du fran çais contemporain, I. Les pronoms*, Champion, Paris, 1965, p. 58.
24) aller, venir 역시 운동 동사로의 의미와 시상을 나타내는 의미에 의한 이중적 의미도 이 동사들이 이중적 통사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도되어질 수 있다.

이처럼 통사구조와 의미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하여 앞에서 제시된 동사들의 통사 구조를 살펴 보자.

우선 devoir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의 문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62) Jean doit mille francs à son propriétaire.
(63) Je dois exécuter ce travail.
(64) Il doit être loin de midi.

위의 세 문장은 차례로 다음 문장들과 동의어의 관계를 이룬다.

(65) Jean est redevable de mille francs à son propriétaire.
(66) a. Il faut que j'exécute ce travail.
b. Il est probable que j'exécute ce travail.
(67) a.* Il fallait qu'il soit loin de midi.[25]
b. II était probable qu'il était loin de midi.

먼저(65)의 $devoir_1$은 être redevable의 의미를 지니며 그 통사적 특성으로서는 주어로 반드시 〔+Animé〕자질을 지니고 명사를 지니며, 보어로서 (66), (67)과는 달리 부정법형태의 동사를 지니지 못한다. 이를 하위범주규칙을 사용 그 통사적 특성을 표현하면 (68)과 같을 것이다.

(68) $devoir_1$: +V, 〔SN——〕〔——SN SP〕, 〔+Animé——〕[26]

반면에 (67)의 경우에서 $devoir_2$는 être probable, sans doute의 의미를 지닌다. 또 비인칭주어가 $devoir_2$의 주어로 나타난 경우 부정법동사 역시 비인칭주어를 인정할 수 있는 동사에 속하여만 한다. 앞의 (59)의 경우에서도 역시 devoir의 해석은 (67)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을 빌어 $devoir_2$의 통사구조를 sembler와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devoir_2$ 역시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동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devoir_2$의 주어는 뒤의 부정법 동사의 선택자질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결과로 $devoir_2$의 주어에 대한 통사적 선택자질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devoir_2$의 통사적 특성을 표현하면 (69)와 같으며, (64)의 유도과정은 (70)처럼 나타난다.

(69) $devoir_2$: +V, 〔△——〕〔——p'〕[27]

25) 이 문장은 그 자체로서는 문법적인 문장일 수 있지만, (64)과 동의어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표 *를 첨가하였다.
26) 동사의 하위 범주에 관한 통사적 자질의 표현에 관한 문제는 다음의 책을 특히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C. Nique, *Initiation méthodique à la Grammaire Générative, A. Colin,* 1978 pp. 94–112.
A. Radford, *Transformatàmal Syntax.* Cambridge, London, 1981.
27) 여기에서 △는 공범주 catégorie vide를 의미한다.

(70) a. △ doit (P′ comp (p il être loin de midi.))
b. II doit (p t être loin de midi)

(70)a에서 (70)b로 변형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70)a에서 P의 주어인 il이 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28] 그러므로 이 경우에서 devoir$_2$는 p′ 탈락을 인정하는 동사로 여겨지면서 il은 격을 부여받는 위치인 △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동으로 생성된 (70)b에서 il이 원래의 위치에 남기어 놓은 흔적은 그것을 지배하는 gouverner 동사 devoir의 최대투영 속에 그것을 성분—지배하는 c-commander 선행사 il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주원리를 만족시킨다.[29]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devoir$_2$의 통사구조는 sembler처럼 (69)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며, N.Ruwet(1972)의 En-avant규칙의 설정으로 인한 대명사en의 분포현상은 devoir$_2$의 이러한 구조를 재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30]

(71) a. La solution de ce problème doit être simple.
*b La solution en doit être simple.
c. La solution doit en être simple.

(63)의 devoir의 경우에서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반드시 〔+Auimé〕의 자질을 지니는 명사가 주어로 출현하여 Il faut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며[31] 다른 하나는 (64)의 경우와 같은 해석의 방법이다. 즉 (64)의 devoir$_2$는 주어에 대한 선택제한이 devoir-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질을 띤 명사라 할지라도 뒤의 부정법동사와 그하위범주규칙을 만족시킨다면 주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63)의 경우에서는 그것이 D-structure로서 (64)의 경우와 같은 (73)a, 그리고 주어통제원리가 적용되는 (74)와 같은 두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72) devoir$_3$: +V, 〔SN——〕〔——P′〕, 〔+Animé——〕

28) Chomsky (1981)의 격이론에 의하면 모든 명사구는 반드시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면서 명사구의 분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명사구를 포함하는 문장은 격여과장치에 의해서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격이론을 다음 문장에서의 명사구의 존재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i) Pierre est un bon étudiant.

29) R. Kayne. Ecp Extensions, *Linguistic Inquiry 12*, 1981.

30) N. Ruwet, La Syataxe du pronom《en》et la transformation de《montée du sujet》, in *Théorie syntaxique et Syntaxe du français*, Seuil, Paris, 1972.

31) 그러한 모든 주어가 본래부터 [+Animé]의 자질을 지니는 않는다.
(i) Le parti doit expliquer sa position
위 문장에서 보듯이 le parti는 본래 [+Animé]의 자질을 띠고 있지 않지만 이 문장은 Il faut . . . 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범주화과정이 필요하다. H. Huot, *le verbe《devoir》*, klincksieck, 1974. p. 31

(73) a. △ dois (P′ comp (p je exécuter ce travail.))
b. Je dois (p t exécuter ce ravail.)
(74) Je dois (P′ comp (p PRO exécuter ce travail.))[32]

한편 pouvoir의 경우에서도 devoir에서 처럼 그 의미의 이중적 분화는 통사구조의 차이에서 온다고 말 할 수 있다.

(75) Il pourrait être onze heures.
(76) Pierre peut soulever cent kilos.

(75)와 (76)에서 pouvoir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즉 (75)는 (77)과, (76)은 (78)과 동의어의 관계에 있다.

(77) Il serait possible qu'il soit onze heures.
(78) a. Pierre a la force de soulever cent kilos.
b. Pierre est capable de soulever cent kilos.

이처럼 pouvoir의 경우에서도 devoir에서 처럼 의미의 이중성은 아래와 같은 구조의 이중성에서 온다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79) pouvoir$_1$: + V, [△——] [——P′]
(80) pouvoir$_2$: + V, [SN——] [——P′], [+ Animé——]

(79)에서 pouvoir$_1$은 주어에 대한 선택자질을 직접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의 명사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로 (76)의 문장은 (78)a,b 처럼 두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80)의 pouvoir$_2$는 그 주어에 대한 선택자질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 하며, 이 경우에서 pouvoir$_2$는 뒤의 부정법절을 중성대명사 le로 대신할 수 있다.[33] 그러므로 (75)와 (76)의 문장의 유도과정 및 D-structure를 표현하면 (75)에서 오직 (81)로서만 그 해석이 가능하지만 (76)은 (82)와 (83), 두가지 가능성을 지닌다.

(81) a. △ pourait (p′ comp (p il être onze heures.))
b. Il pourrait (p t être onze heures.)[34]

32) (74)에서는 앞의 (70)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구인 il의 주어로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P′탈락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devoir$_2$는 반드시 P′탈락을 인정하는 동시에 sembler와는 달리 P′를 절대로 보어절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부터 P′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p를 보어절로서 한다고 그 동사 자질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devoir$_2$: +v, [△-] [—p]
33) II. 2. 3참조.
34) devoir$_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ouvoir$_1$ 역시 P′탈락을 용인하는 동사군에 속하며, que P형태의 보어절을 지닐수 없기 때문에 (79)의 형태를 구조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pouvoir$_1$: + v, [△—] [—p]

(82) a. △ peut (p′ comp (p Pierre soulever cent kilos.))
b. Pierre peut (p t soulever cent kilos.)
(83) Pierre peut (p′ comp (p PRO soulever cent kilos.))

이러한 pouvoir의 이중적 구조의 설정에 대한 정당성은 앞의 devoir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명사 en의 위치에 의해서 재확인될 수 있다. (84)c에서의 pouvoir는 반드시 (79)에서 주어지는 해석을 지니게 된다.

(84) a. La solution de ce problème peut être simple.
*b. La solution en peut être simple.
c. La solution peut en être simple.

한편 aller의 경우에서도 앞의 두동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전통문법에서 운동동사로서의 aller와 시상을 나타내는 준조동사로서의 aller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자의 aller와 후자의 aller$_1$에서의 의미적 차이는 이 동사가 보어로서 취하는 구문의 구조적 차이에서 온다고 본다. 즉 aller$_1$는 주어로서 반드시 〔+Animé〕자질을 지니는 명사구가 와야만 하지만, aller$_2$는 그렇지 않다. 다시말하면 주어에 대한 선택자질에 대해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sembler처럼 부정법 동사의 선택자질제한에 의해서 주어가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aller역시 일반동사로서[35] 두개의 어휘 항목을 지닌다고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해석은 주절의 주어로서 나타나는 단어의 통사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85)의 문장은 주어상승규칙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시상을 의미하는 동사로서 해석이 되어지며, 반면에 (86)은 두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36]

(85) Cet exposé va être publié par Pierre.
(86) Jean va voir Pierre.

이러한 면에서 aller의 통사자질에 대한 어휘부를 명세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87) aller$_1$: +V, 〔SN——〕 〔——(P′, sp), 〔+Animé——〕
(88) aller$_2$: +V, 〔△——〕 〔——P′〕[37]

35) 다만 aller는 devoir, pouvoir에서 처럼 자동사, 타동사로의 차이가 아니라 두 동사가 모두 자동사로서, 부정법절의 주어인 공범주 catégorie vide의 해석상에 있어서 하나는 (aller$_2$) 이동규칙이 적용된 흔적이며, 다른 하나(aller$_1$)는 통제원리가 적용되는 PRO라는 차이다. 그렇지만 통제원리가 적용되는 모든 보어절이 중성대명사 le로서 대체 되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aller$_1$의 경우에서 이러한 중성대명사와의 비화합성 incompabilité을 설명할 수 있다.
(i) Il est facile de comprendre cela
→* Il l'est facile

36) (86)에서 주어인 Jean이 (+Animé] 자질을 띠고 있으므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어 상수규칙을 용인하는 동사는 그 주어에 대해서 직접적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37) aller$_2$의 경우에서도 보어로서 항상 부정법절만이 나타나므로, 앞의 devoir, pouvoir의 경우에서 처럼 통사자질에 대한 어휘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ller$_2$: + v, [△——] [——p]

특히 aller의 경우에서는 뒤에 오는 부정법절의 성격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더욱 확인되어질 수 있다.

(89) a. Où Jean va-t-il?
b. Voir Pierre.
(90) a. Où cet exposé va-t-il?
*b. Etre publié par Pierre.

위에서 보듯이 aller가 운동동사로 해석되어지는 경우에서만 그 부정법절이 의문부사 où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능하지만, 시상을 나타내는 aller의 경우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aller의 두 통사항목에 대한 설정은 올바른 방향에서의 동사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8] 특히 $aller_2$의 (88)구조에 대한 증명은 다음에서 더욱 확인되어질 수 있다.

(91) a. L'auteur de ce livre va devenir célèbre.
*b. L'auteur en va devenir célèbre.
c. L'auteur va en devenir célèbre.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devoir, pouvoir, aller 등의 동사는 더이상 조동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두개 이상의 통사적 특성을 지니는 어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여, 그 하나는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동사이며, 다른 하나는 보어절의 주어로서 PRO를 설정하여 통제원리가 적용되는 동사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venir의 경우에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동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동사들과는 달리, 두개의 통사자질을 지니는 어휘항목을 설정할 경우, 한 경우에서는 지금까지의 생성문법의 이론에서 보어절을 이끄는 보문소로서의 de를 동반하기 때문이다.[39] Kayne(1980)에 의하면 sembler처럼 주어상승규칙을 인정하는 동사는 보문소de를 동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처럼 운동동사venir가 주어로서 〔+Animé〕자질을 띠는 명사만을 인정한다면, 보어절의 주어는 PRO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전통문법에서 조동사로 여겨지던 venir(de)의 경우에서는 de라는 형태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devoir_2$, $pouvoir_1$, $aller_2$의 경우처럼 주어상승규칙을 설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설명하여 보자.

(92) △ vient ($_{P'}$ comp de ($_{p}$ Jean arriver ici.))
(93) Jean vient ($_{P'}$ comp de ($_{p}$ ti arriver ici.))
(94) Jean vient d'arriver ici.

38) M. Gross.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Syntaxe du français,* Larousse, Paris, 1968, pp. 75–76.
39) 보문소로서의 de에 대한 연구로서는 다음 것을 참조할 수 있다.
H. Huot, *Construction infinitive dn français,* Droz. Gènève, 1981.
R. Kayne," De certaines différences entre le français et l'anglais", *Langages 60,* 1980.

만약에 Chomsky(1981)가 제안하고 있는 G.L.이론이 옳다면, (94)에 대한 D-와 S-Structure로서 (92)와 (93)을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92)에서 P의 주어인 Jean은 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로 움직여가야 한다.[40] 그것이 바로 (93)이라는 S-Structure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93)의 구조에서 t_i는 Jean의 흔적이기 때문에 결속이론에 의해서 그것의 지배범주catégorie gouvernante 내의 선행사에 의해서 적어도 성분—지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93)에서 동사vient은 t_i를 지배하기 위해서 P′와 P라는 두개의 P형태 범주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93)에서 t_i에 대한 적절한 선행사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94)에 대한 D-Structure로서 (92)를 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한다.[41] 동시에 (93)에서 t_i에 위치하는 공범주는 더 이상 Jean이 움직여 가면서 남기어놓은 흔적으로 여길 수 없다. 결속이론의 가정에 의해서 SN흔적과 PRO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분포를 지닌다면 (93)의 바로 그 위치에 PRO를 놓은 (95)의 구조를 설정하여 보자.

(95) Jean vient ($_{P'}$ comp de ($_P$ PRO arriver ici.))

(95)의 구조에서 PRO는 지배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95)에서의 PRO는 결속이

40) Kayne (1980)이 제안한 것처럼 불어에서 전치사 보문소는 그 주어를 지배하지 gouverner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1) 한편 Kayne (1981)은 공범주 원리를 [+Qu] 자질을 지니는 흔적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범주의 존재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속절 동사의 삼투투영 projection percolée 범위는 이 동사를 포함하는 P′를 지배하는 상위동사의 투영범위와 동일하다고 전제하면서 공범주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공범주 β는 선행사 α를 지녀야 한다.
조건 1) α가 β를 지배하거나
2) α가 β를 성분—지배하며, 어휘범주×가 있어서 그것이 β를 지배하고 α가 ×의 삼투투영 범위속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93)에서 흔적 t_i는 어떠한 어휘 범주에 의해서도 지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범주의 원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94)의 문장의 생성에 대한 유도과정의 s-structure로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나 Kayne의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대명사의 이동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이론이 되지 못한다.

(i) Jean veut manger la pomme.
*(ii) Jean la veut manger.
(iii) Jean veut la manger.
(iv) Jean veut ($_{P'}$ comp ($_P$ PRO manger la pomme.))
*(v) Jean la veut ($_{P'}$ comp (p PRO manger t.))
(vi) Jean veut ($_P$,comp ($_{P'}$ PRO la manger t.))

(v)에서 흔적은 어휘 범주인 manger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한 veut는 manger를 포함하는 P′를 지배하기 때문에 manger의 삼투투영범위와 vouloir의 투영범위는 같다. 즉 (v)에서 t의 선행사인 la는 manger의 삼투투영범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Kayne이 제시한 공범주원리를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Kayne의 공범주 원리는 비록 Qu의 흔적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명사구의 흔적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공범주원리는 이 두 흔적을 모두 설득력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경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로 미루기도 한다.

론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venir는 두 어휘항목이 모두 통제원리가 적용되는 통사구조를 지니지만 보문소로서 하나는 zéro, 다른 하나는 de를 인정하는 면에서 틀리며, 주어에 대한 제약에서도 하나는 〔+Animé〕의 명사만을 용인하지만, 다른 하나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96) a. La solution de ce problème vient d'être trouvée.
*b. La solution en vient d'être trouvée.
c. La solution vient d'en être trouvée.

이 경우에서 En-avant규칙의 설정이 일단 옳다면, (96)b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의 위치에서 대명사en으로의 변형은 오로지 형용사에 의해서 뒤따라지는 동사être의 경우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42] 그러나 (96)c의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S-structure의 설정이 필요하다.

(97) La solution vient ($_{p'}$ comp de ($_{p}$ (PRO-t) en être trouvée.);

그러나 이 구조는 모든 흔적은 그 선행사에 의해서 성분—지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배하고 있다.[43]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의 G.L.이론 상에서는 venir(de)의 구문에서의 공범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문제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G.L.이론 자체의 문제점으로, 과연 이 이론에서 전개하고 있는 원리들이 틀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문장의 구문분석에서 잘못 된 점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식 내에서 G.L.이론 상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구문분석에서 틀린 점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Huot(1981)와 Kayne(1980)이 말하는 것처럼 불어에서 부정법을 이끄는 de가 과연 진정으로 보문소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이 이것이 보문소가 아니라면, 이때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zéro형태의 보문소가 가정될 수 있다.

(98) △vient (p' comp (p Jean d'arriver ici.))

그러므로 (98)에서도 devoir$_2$, pouvoir$_1$, aller$_2$에서 처럼 P' 탈락을 인정한다면 (94)의 D-Str-

42) A. Borillo et alli, *Exercices de syntax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A. Colin, 1974, pp. 45–46.
N. Ruwet, *op. cit.* pp. 49–50.
43) En-Avant규칙은 주어내의 명사보어를 동사구로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ucture로서 (98)의 가능성을 제시에는 문제가 없다.

이상의 관점을 이용하여 être en train de, être sur le point de에 대한 구문을 살펴보면 더 이상 준조동사+본동사의 구문으로써가 아니라 être동사들에 대한 보어로서 전치사구를 취하는 통사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9) La viande est en train de refroidir.
(100) La viande est ($_{sp}$ en ($_{sn}$ train ($_{p'}$ de ($_{p}$ e refroidir.))))
(101) J'étais sur le point de partir,
(102) J'étais ($_{sp}$ sur ($_{sn}$ le point ($_{p'}$ de ($_{p}$ e partir.))))

(99)와 (101)의 기저구조를 각각 (100)과 (102)로 여길 때, 종속절 속의 공범주e는 명사구의 흔적인가 아니면 PRO인가를 밝혀야 한다. 우선 명사구의 흔적이라고 가정하여보자. 그렇다면 선행사로 여겨질 수 있는 la viande(혹은Je)는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장소로 부터 이동하기 위해서 SN과 P'라는 순환범주를 동시에 뛰어넘어야 한다. 이러한 이동의 방법은 하위인접조건conditian de la sous-jacence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 뿐아니라, 그 흔적을 지배하는 어휘범주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선행사 역시 그 흔적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범주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100)과 (102)에서의 공범주는 적어도 명사구의 흔적이 될 수 없다. 다음에는 이 공범주가 통제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PRO라고 가정하여 보자. 이 때의 공범주 위치는 지배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속이론을 만족시킨다. 한편 통제원리는 하위인접조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100)라 (102)에서 la viande와 Je는 PRO에 대한 선행사로의 해석이 가능하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과거 전통문법에서 의미론적인 면에 근거하여 준조동사로서 취급되어 그 뒤의 동사와 함께 하나의 동사군을 이룬다고 여겨졌던 devoir, pouvoir등의 동사들은 순수한 통사적 입장에서 고찰하여 보았을 때 따로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서 구성될 필요가 없음을 알게되었다. 그러나 시제를 나타내는 avoir와 수동형을 이끄는 être의 경우에서는 뒤의 동사와 하나의 군을 이루는 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래서 Ⅲ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순수히 통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동사군의 구조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 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Ⅲ. avoir와 être

Ⅱ장에서는 과거의 전통문법과 구조문법에서 준조동사로 여기면서 그 뒤를 따르는 동사들과 함께 하나의 동사군을 이룬다는 가설을 반대하면서, 준조동사로 여겨졌던 모든 동사를 다른 일반동사들과 통사적 형태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 동사들을 통사구조를

살펴보았다.[44] 이런 결과로 이제는 과거 문법이론에서 조동사적 역활을 하는 동사들 중에서 남는 것은 avoir와 être뿐이다. 이 동사들이 조동사적 형태를 한다면 불어에서는 적어도 Aux라는 범주가 필요하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범주의 설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보여준 통사적 형태가 일반동사들이 지니는 통사형태라면 avoir와 être는 조동사로서 뒤에 오는 동사와 하나의 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45]

Ⅲ. 1. 통사적 형태

Ⅲ. 1. 1. 동사와 보어로 기능하는 명사구는 대명사화되어 이동될 때 Ⅱ장의 경우에서 와는 달리 avoir의 앞쪽까지 이동한다.

(103) Pierr a mangé cette pomme. → Pierre l'a mangée.
*Pierre a la mangée.

(104) Cette porte a été ouverte. → Cette porte l'a été.
* Cette porte a l'été.

(105) Il est resté trois hommes. → Il en est resté trois.
* Il est en resté trois.

이를 보면 적어도 avoir, être는 앞의 devoir계통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

Ⅲ. 1. 2. 부정소사의 출현을 살펴보면, avoir, être의 경우에서는 다른 일반동사들과는 달리 오직 한 번만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106) a. Pierre n'a pas mangé cette pomme.
*b. Pierre n'a pas ne pas mangé cette pomme.
*c. Pierre n'a pas ne mangé pas cette pomme.

(107) a. Cette pomme n'est pas mangée par Pierre.
*b. Cette pomme n'est pas ne pas mangée par Pierre.
* c. Cette pomme n'est pas ne mangée pas par Pierre.

위의 예처럼, 부정소사는 결코 두번에 걸쳐 하나의 문proposition속에 나타날 수 없다면 avoir, être와 다음의 동사는 하나의 동사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Ⅱ장에서 devoir등의 동사들은 이러한 제약에 결코 구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본장에서

44) 하나의 동사가 어떠한 하위범주화된 요소들을 지니는가 하는 것을 G. L. 이론상에서는 투영원리 principe de projection —혹은 확대투영원리—를 이용하여 구절구조규칙에서 만들어지는 D-structure를 대신하고 있다. Chomsky (1982), pp. 4-17참조.

45) 참고로, 영어의 경우를 살펴보면 불어의 avoir와 être에 해당하는 have와 be 역시 일반동사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학자들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K. Pullum과 R. Huddleston 등을 들 수 있다.

살펴보는 avoir, être와는 그 통사적 형태가 다름을 보여준다.

Ⅲ. 1. 3. 한편 avoir, être의뒤에 오는 동사들에 대한 대명사화, 혹은 탈락현상에 의해서도, avoir, être와 그 뒤의 동사는 하나의 동사군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A.Radford(1981)가 말하는 것처럼 PRO-forme은 오직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 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전제가 옳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avoir, être의 통사적 특성은 일반동사와는 다르며, 이 동사는 뒤에 오는 과거분사 형태의 동사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108) Vous avez mangé cette pomme. → * Vous l'avez.
(109) Pierre est parti pour Séoul. → * Pierre l'est.

한편 다음과 같은 탈락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위에서 전제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110) a. Marie a voulu visiter le musée, mais je n'ai pas voulu.
* b. Marie a visité le musée, mais je n'ai pas.
(111) a. Ils osent entrer sans payer, et nous osons aussi.
* b. Ils sont entrés sans payer, et nous sommes aussi.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계열의 문장에서 vouloir 와 oser 다음에 오는 visiter le musée, entrer sans payer는 하나의 독립된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탈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계열의 문장에서, entrer sans payer와 visiter le musée가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하나의 독립된 구성요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므로 avoir, être가 함께 탈락되어 나타나는 (112)과 (113)이 문법적 문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avoir, être와 그 뒤에 오는 동사는 하나의 구를 이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여주는 현상이다.

(112) Marie a visité le musée, et moi aussi.
(113) Ils sont entrés sans payer, et nous aussi.

Ⅲ. 1. 4. 이번에는 le faire의 대체현상을 살펴보자. Ⅱ. 2. 4에서 보았듯이 일반동사의 경우에는 보어절, 즉 부정법절을 대신하는 대동사는 일반동사의 뒤에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동사의 뒤에 나타나는 보어절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avoir와 être의 뒤에 나타나는 동사구의 형태는 그렇지 못하다.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avoir와 être는 일반동사들과는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114) Ils travaillent dans cette usine comme leurs pères l'ont fait.
* (115) Ils travaillent dans cette usine comme leurs pères ont le fait.

즉 avoir, être와 그 뒤에 오는 동사구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여야 만 (114)의 문법성과 (115)의 비문법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즉 (115)에서 travaillé dans cette usine가 하나의 구성요소로 여겨진다면 Ⅱ. 2. 4에서 처럼 그 자체가 le fait로 변형되어 le가 avoir의 앞에 까지 이동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통일성을 잃고 만다.

Ⅲ. 1. 5. 마지막으로 avoir, être의 조동사적 성격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일반동사들과는 통사적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면적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일반동사등의 뒤에 오는 동사는 전치사를 동반하던 않던 간에 항상 부정법의 형태인데 반하여, avoir, être는 뒤에 오는 동사는 반드시 과거분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표면적 사실의 관찰에서 얻는 직관으로서도 avoir, être는 일반동사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Ⅲ. 2. 통사구조

이미 앞에서 devoir, pouvoir, aller, venir등의 동사들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어휘항목을 설정하면서, 그 의미의 차이점은 구조적 차이점에서 온다고 설명하였다.[46] 이러한 결론은 avoir, être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우선 être의 경우를 살펴보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어휘항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동사로서 기능하는 êtrt가 된다.

(116) a. Pierre est sorti de chez elle.
b. La soupe a été mangée par Pierre.

두번째 어휘항목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전통문법에서 속사라고 일컫는 기능을 지닌 명사구나 형용사구와 화합하는 être이다.

(117) a. Marie est une bonne étudiante.
b. Ce paysage était magnifique.

세번째 어휘항목으로 여겨지는 être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être로서 보어로서 임의적 전치사구를 동반할 수 있는 것이다.

(118) Pierre est dans le jardin.

3장에서의 être en train de, être sur le point de에서 나타나는 être는 세번째 어휘항목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47]

46) 물론, 의미론적 차이점, 즉 중의성은 구조적인 차이점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그 자체에서도 기인한다. 그리하여 전자의 것을 구조적 중의성 ambiguité structurale이라 하여, 후자의 것을 어휘적 중의성 ambiguité lexicale이라 한다.

한편 avoir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 역시 3개의 어휘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 그 첫째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동사로서의 avoir이다.

(119) a. Pierre a mangé le déjeuner.
b. L'ingénieur a dû établir un rapport.

두번째 어휘항목으로서는 직접목적보어로서 명사구를 지니는 타동사로서의 avoir가 될 수 있다.

(120) a. J'ai un stylo.
b. Pierre a une canne à la main.

이러한 두번째 항목에 avoir beau, avoir le temps, avoir raison, avoir tort, avoir lieu 등이 속할 수 있다. 여기에서 avoir raison의 구문을 예로 들어보면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 것이다.

(121) Pierre a raison de partir en vacances.
(122) Pierre a ($_{sn}$ ($_{n}$ raison) ($_{p'}$ de ($_{p}$ PRO partir en vacances.)))

(122)과 같은 구조는 위에 예로 든 모든 구문에 대해서 적용되어질 수 있다.

한편 세번째 어휘항목으로서는 devoir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avoir à+inf의 형식을 취하는 있다. 그러므로 (123)과 같은 문장은 (124)와 같은 기저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며, devoir, pouvoir$_2$등과 마찬가지로 주어통제원리가 적용되는 동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3) J'ai à faire manger les enfants.
(124) J'ai ($_{p'}$ à ($_{p}$ PRO faire manger les enfants.))[48]

47) être의 네번째 어휘항목으로서 진행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être à +inf의 형식을 이끄는 être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형식에서 의미의 분화는 구조적 차이점에서 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être도 2개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을 대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아래 문장들의 D-structure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i) Pierre est à travailler
(ii) Pierre est [P' à [p PRO travailler]]
(iii) La maison est à louer
(iv) La maison est [p' à [p PRO louer t]]
특히 (iii)과 (iv)의 구문의 설명에 있어서는 Chomsky (1977)을 참조.

48) H. Huot (1981) 처럼, 이 때 à를 전치사구를 이끄는 전치사로서 보고 원래의 보문소는 de라고 여기면서, préposition + de → préposition + e라는 삭제규칙을 이용하여 이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사 avoir를 직접 타동사가 아닌 간접 타동사로서 여겨야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보문소로서의 à에 대한 자격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 Huot의 제안에 따라 (123)의 기저구조를 보면 (i)과 같다.
(i) J'ai [$_{sp}$ à [$_{p'}$ de [p PRO faire manger les enfants]]]

이상에서, avoir, être의 첫번째 어휘항목의 것은 다른 어떤 동사들과도 그 통사적 형태를 달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찰로서, 우리는 avoir, être는 그 뒤의 과거분사 형태의 동사와 반드시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었다. 그래서 avoir와 être에게 조동사라는 범주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 범주의 위치는 문장의 수형도 상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즉 문장 속의 다른 요소들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Ⅳ장에서는 조동사의 구조적 위치를 살펴본 후, 만약에 조동사가 동사구syntagme verbal내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과연 불어에서 동사구의 구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Ⅳ. 조동사의 재해석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avoir, être가 조동사라면 이 범주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Ⅱ장에서 과거의 문법체계에서 제시하는 조동사의 범주에 대한 제안은 양태modal를 나타내는 동사계열에 속하는 동사를 조동사의 범주에 넣으므로써 생기는 문제를 여러 통사적 형태에서 그 위치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Ⅱ장과 Ⅲ장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양태를 의미하는 동사가 조동사의 범주에서 탈락되고 오직 avoir, être만이 조동사의 범주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Ⅳ. 1. 조동사의 구조적 위치

우선 avoir와 être만이 조동사의 범주에 속한다면 조동사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표현될 것이다.

(125) Aux → Tps (parfait) $\left(\begin{Bmatrix}\text{parfait}\\ \text{diathèse}\end{Bmatrix}\right)$

이렇게 조동사가 표현되어진다면, 조동사는 적어도 동사를 앞서지만 주어의 뒤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선적인 순서는 결정이 되어진다. 하지만 문장에서 어떠한 요소는 선적인 순서만이 아니라 지배관계 역시 나타내어져야 한다. 즉 문장의 모든 요소들은 그 요소가 문장에서 지니는 선적인 순서와 지배관계에 의해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9] 이러한 지배관계에서 조동사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가능성을 지닌다.

(126) Ph → SN Aux SV

한편 본논문에서 venir의 경우를 다루면서 (98)의 경우에서 처럼 전치사 à를 보문소도 여기지 않고 동사를 이끄는 소개사 introducteur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avoir의 경우에서는 주어에 대한 선택자질로서 항상 [+ Humain]을 지닌 명사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상승규칙이 적용되었다기 보다는 (124)에서 처럼 통제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9) A. Radford,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London, 1981. Chapitre 2.

(127) Ph → SN SV_1
SV_1 → Aux SV_2[50]

위의 두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통사적 측면에서 더 타당한가를 다음과 같은 통사적 형태를 통해서 살펴보자. 우선 대명사의 위치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를 보기 위해서 (128)에서 대명사가 움직이는 과정을 각각 그림(3)과 그림(4)을 통해서 표현하자.[51]

(128) Pierre a rencontré Marie dans la rue.
Pierre l'a rencontrée dans la r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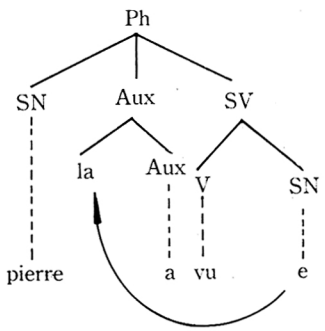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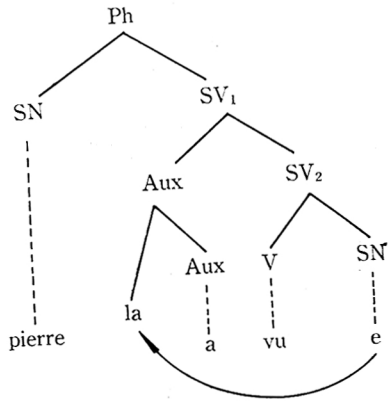

그림 (4)

그림(3)에서나 그림(4)에서 Marie가 원래의 위치에 흔적을 남기면서 이동된 대명사 la는 그 흔적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두 경우에서 모두 최대투영의 일종인 SV에 의해서 그 흔적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52] 그러나 그 흔적을 지배하는 어휘범주—voir—의 투영 속에 그 선행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주원리를 만족시켜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대명사의 이동위치에 관련하여서는 위의 두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Ⅲ장에서의 (110)～(113)의 문장을 살펴보면(126)의 구조보다는 (127)의

50) (127)을 X′-통사론을 이용하여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다.
Ph → N″V″
V″ → Aux, V′

51) 여기에서 모든 이동을 겪어서 다른 문장의 요소에 부가되는 요소들은 촘스키—부가 adjonction de Chamsky 된다고 가정한다.

52) 그러나 X′-통사론의 입장에서 그림 (4)에서 SV_1은 V′에 해당하기 때문에 V의 최대투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X′ 통사론을 받아들이면 (126)보다는 (127)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27)에서 나타난 그림 (4)에서는 그 흔적이 선행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가 더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0)b. Marie a visité le musée, mais je n'ai pas.
* (111)b. Ils sont entrés sans payer, et nous sommes aussi.
(112) Marie a visité le musée, et moi aussi.
(113) Ils sont entrés sans payer, et nous aussi.

위의 문장들에 관련된 구조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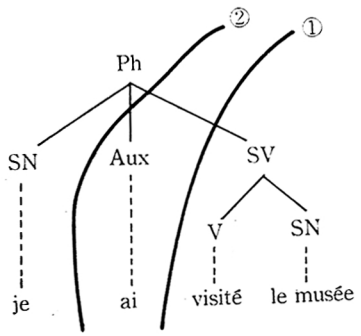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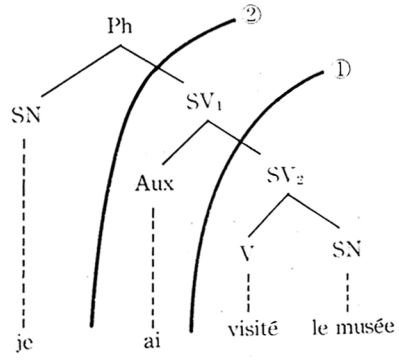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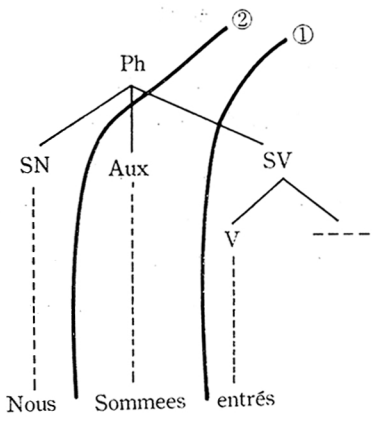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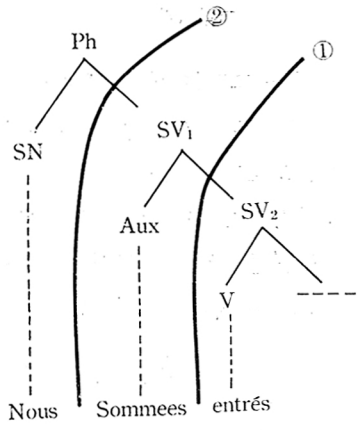

그림 (8)

그림(5)와 (7)에서 실선① 이하의 부분은 틀림없이 SV라는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그럼에도 왜 그 이하 부분이 탈락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하는가? 한편 같은 그림에서 실

선② 이하는 조동사와 동사구는 서로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탈락된 문장은 문법적 이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구성요소의 구분은 통사적 형태에서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 부인되지 않는 한 (126)에서의 문장분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 한편 (127)에 근거한 그림(6)과 (8)은, (110)～(113)에서의 문법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즉 SV_1은 하나의 커다란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것이 탈락되어 문법적인 문장(112), (113)을 유도하여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SV_2역시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므로 탈락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탈락되면 (110)b, (111)b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된다. 하지만 이러한 탈락의 가능성은 조동사Aux가 동사구SV내에 속하여있다고 한다면 미리 제거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주)52에서 언급한 것처럼 X′통사론의 유용성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Ⅳ. 2. 동사구의 구조

조동사라는 범주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그 조동사는 (126)의 구조가 아니라 (127)의 구조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조동사는 동사구의 범주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 동사구의 내적구조는 어떠한 것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단 (127)의 가정에 의한 SV_1이라는 커다란 범주 속에 SV_2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렇다면 SV_1이나 SV_2나 모두 독립된 구성요소인 것처럼 표현되어진다. 즉 SV_2도 하나의 구성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왜 (110)～(113)에서의 문장들은 SV_1의 탈락만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V라는 커다란 범주 속에서 조동사의 위치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voir, être만이 조동사의 범주에 속하고, (127)에서 SV_2에 속하는 동사가 전체 동사구에서 주된 동사라면, 이것을 X′통사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전체의 동사구는 v″가 되며, SV_2에 속한 동사가 전체의 중심요소tête가 된다는 것이므로 (127)의 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되어 진다.

(129) $Ph \rightarrow N'' \; V''$
$V'' \rightarrow Spec \; V', \; V'$[53]

위 식에서 얻어진 v′에서 나타나는 어휘범주V의 통사적 자질에 의해서 그것의 보어에 대한 하위범주화 작용이 적용된다.

(130) $V' \rightarrow V \; (SN) \; (SP)$[54]

53) 이식에 N″는 SN을 대신하며, V″는 SV를 대신한다. 한편 spec V′는 Aux를 의미하며 V′는 (127)식에서 SV_2를 대신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54) 이와 같은 X′ 통사론의 관점은 과거문법에서의 범주의 경계에 대한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이론이다. 한편 X′-통사론의 관점은 이러한 모순만이 아니라 모든 구는 자신의 주된 요소를 반드

이와같이 x'통사론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식은 주 52)에서 언급하였듯이 (127)에서의 Aux를 Spec v'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범주에서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주된요소를 포함하는 V'는 단독적으로 결코 탈락될 수 없다는 것은. X'는 결코 탈락될 수 없다는 일반적 제한조건과 상응하게 된다.

* (131) Pierre a cassé la table, mais Marie n'a pas cassé la.
* (132) Marie est très belle, et Cathie est aussi très.
* (133) II a parlé à Pierre, et elle a parlé à.

위의 예문들은 명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내에서 모두 주된요소들—즉 X' 혹은 X—이 탈락된 문장들이기 때문에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일반적 성격은 동사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앞의 (127)식에서 SV_2 만이 탈락되어[55] 유도되어지는 문장들 역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있다. 이처럼 조동사를 전체 동사구에서의 Spec V'에 속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V'의 탈락으로 인한 비문법성을 다른 범주와의 일반화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여진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 언어현상은 불어에서는 (130)에서 V의 하위범주화 작용에 의해서 반드시 보어로써 나타나야 하는 요소들은 결코 탈락되어질 수 없다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불어에서는 영어에서와는 달리 오직 V″탈락만이 존재할 뿐, V″내의 요소들은 그것들이 하나의 독립된 구성요소를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탈락되어 질 수 없다.[56]

(134) a. * Pierre va à l'école, mais Marie ne va pas.
b. Pierre va à l'école, mais Marie n'y va pas.
c. Pierre va à l'école, Marie aussi.
(135) a. * Jean est plus grand que je ne suis.
b. Jean est plus grand que je ne le suis.
c. Jean est plus grand que moi.
(136) a. * Pierre aime Marie et Paul aime aussi.

시 포함하고 있다는 일반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129)와 (130)에서의 식은 동사구에서 만이 아니라 다른 범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식들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다.
$X'' \rightarrow \text{Spec } X', X'$
$X' \rightarrow X\{X'', ph\}$

55) 이것을 (129)의 식에 의하면 V″ 내에서 Spec v' 만을 남기고 v'가 탈락되는 것을 의미한다.

56) 영어와 불어가 다르다고 하는 점은 좌측전위의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점이 없지만, 어느 한 요소를 강조하고자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topicalisation 영어에서는 그 요소를 대명사로 반드시 다시 표현할 필요가 없지만, 불어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사를 필요로 한다.
(i) Jean, je l'aime.
*(ii) Jean, j'aime
(iii) John, I like him.
(iv) John, I like.

b. Pierre aime Marie et Paul l'aime aussi.
c. Pierre aime Marie et Paul aussi.

이제는 동사구 전체의 내적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avoir, être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을 살펴보자.

(137) Paul achète une robe pour sa mère.

이 문장에서 SpecV′가 과연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점을 밝혀야 한다. Pullum처럼 형태론적 규칙에 의해서 achèe라는 형태가 나타난다기 보다는 Chomsky가 제안한 접사변형 transformation affixale을 이용한다면 Spec V′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pecV′→Aux로서 다시 쓰인다고 한다면, Aux는 다시 인칭변화구문과 부정법구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별에 필요하여진다.[57]

(138) Spec V′ → *m* Aux
Aux → [± Temps]

이처럼 chomsky가 제안한 접사변형을 인정한다면, V″내에서의 Spec V′의 의무적 출현은 P″와 N″에서의 그것처럼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137)에서의 관련된 구조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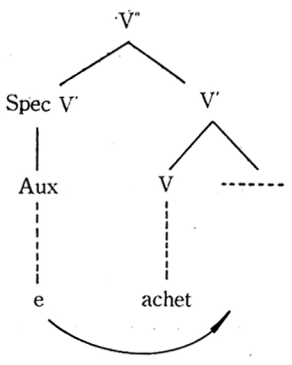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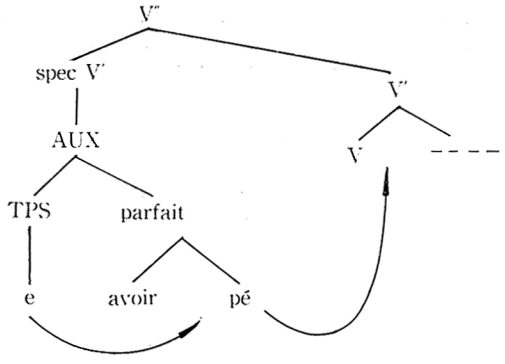

그림 (10)

다음 단계를 avoir, être의 조동사가 나타나는 문장을 살펴보자.

(139) Pierre a mangé le dîner à 7 heures.

57) Aux의 다시 쓰기에서 나오는 표현은 자질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질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접사의 출현은 달라진다.
58) 그림 (9)에서 접사의 이동은 Chamsky에 의하면 치환변형으로 나타나지만 우측이동하는 식으로 지급단계에서는 표현하기로 한다.

(140) Pierre est allé à l'école.
(141) Cette pomme est mangée par Pierre.

이때의 Spec V′ 즉 Aux-에 대한 구조는 그림(10)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에서도 역시 접사변형이 적용된다면 위의 문장들의 유도가 설명되어진다.

그런데 avoir, être가 이중으로 나타나는 복합시제가 수동태를 이끄는 être가 복합시제로 나타나는 다음의 문장을 살펴볼 때 Aux의 구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여진다.

(142) Pierre a eu écrit la lettre à sa mère.
(143) Cette pomme a été mangée par Pierre.

이때 Ⅱ장에서의 다시쓰기규칙에서 생겨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동사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조적 관계가 명확히 표현되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42)의 경우처럼 완료상 parfait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때에, Ⅱ장에서 처럼 두 완료상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선택관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의 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142)~(143)에서의 조동사의 내적구조를 명쾌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X′ 통사론을 사용하여 조동사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보자.

그림(11)을 보면, Aux 역시 하나의 범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Aux″로 표현되어지고, 이것의 내적구조 역시 다른 범주와 마찬가지로 분할된다 할 수 있다. 그림(11)에서 Aux''_2는 Aux''_1의 확장으로 인하여 유도되어지는 구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에 의하여 종속되어진다 할 수 있다. 이처럼 X′통사론을 사용하여 Aux의 구조를 표현하면 Ⅱ장에서 나타났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때 접사변형의 문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나누어졌던 V″탈락으로 돌아가 보자. 즉 (137)과 같은 문장에서 치환변형에에 의해서 접사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SpecV′에 속해있던 접사가 V′속의 중심요소인 V에 부가됨으로써 실제적으로 V′만이 남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오로지 V′만이 탈락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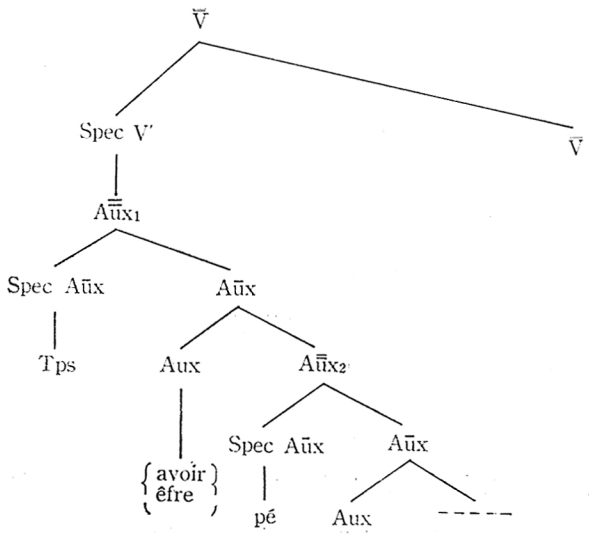

그림 (11)

도 V″탈락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144)는 V″탈락 혹은 V′ 탈락으로 인하여 생성 문장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144) Pierre achète une robe rouge pour sa mère et Paul aussi.

그러나 이러한 V′ 탈락의 가정은 avoir, être와 같은 실제적인 조동사가 나타나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144)의 유도에 대한 중요성을 없애고, 오직 V″탈락만을 가정하는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사변형보다는 V′의 V가 Aux″의 위치로 이동하는 좌측이동을 가정하여 보자. 즉 V′속 V의 이동을 Aux″가 오직 Spec Aux′만을 실현하고 Aux′를 실현하지 않는 경우에 Aux′의 위치로 좌측이동하고 다시 Spec Aux′의 좌측에 부가되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59] 이런 가정하에서 (144)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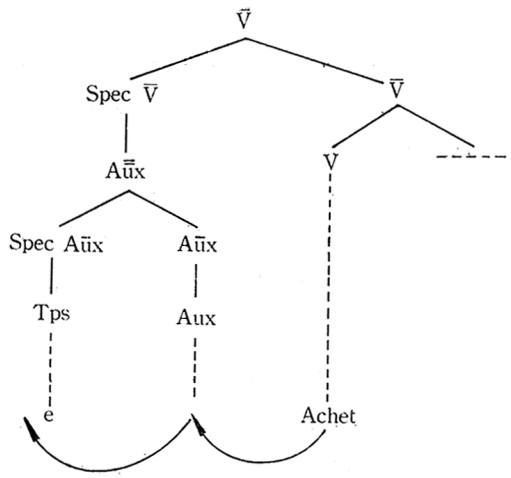

그림 (12)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V″탈락에 대한 일반성을 띤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아니라 부정소사의 위치와 의문화변형에 대한 설명에서도 일반성을 유지하는 타당성을 띠고 있다. 즉 접사변형을 인정하는 한에 있어서는 부정문에서의 부정소사의 위치를 설정하는데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을 줄 수 없다.

(145) Pierre n'achète pas de livres.
(146) Pierre n'a pas acheté de livres.
(147) Pierre n'a pas eu acheté de livres.

(145)에서는 부정소사가 V′ 내의 V에 위치하여야 하는 반면에 (146)과 (147)에서는 Aux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V′ 내의 V가 Spec Aux′가 표현되지 않는 한 Aux 내로 이동하고, 그 V는 다시 접사, 즉 Spec Aux′의 좌측에 부가된다고 한다면 부정소사는 오로지 Spec Aux′인 접사에 위치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60] 이러한 일반성은

59) Aux′는 반드시 한번은 표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 (11)-V의 우측은 의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 여러한 동사의 좌측이동에 대한 가정은 접사의 우측이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논문의 입장은 우측이동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며, 이동은 오로지 좌측이동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II. 2. 6에서의 우측이동후에 비

의문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45)
(149) Pierre a-t-il acheté une robe.

한편 Ⅱ. 2. 4와 Ⅲ. 1. 4에서 대동사 Pro-verbe라고 하였던 le faire는 본 논문의 입장에서는 Pro-V″가 된다.

(150) Voyager, Pierre doit le faire.
(151) Ils travaillent dans cette usine comme leurs pères l'ont fa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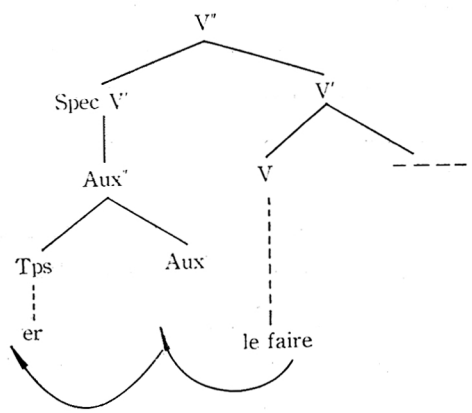

그림 (13)

(150)의 경우에서 관련된 구조를 표현하면 그림(13)과 같다. 이미 Aux는 (138)에서 언급한 것처럼 〔—temps〕이 되어야 한다. 그림(13)에서 V′의 V가 Aux의 내로 이동하기 때문에 le faire는 Pro-V″이다. 한편 (151)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Aux의 내적구조만이 다를 뿐이다.

이처럼 X′통사론을 사용하므로써 동사구의 내적구조에서 조동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또 조동사가 동사구내에서 하는 기능에 대하여서도 다른 범주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접사의 우측이동보다는 오히려 동사의 좌측이동을 설정하므로써 V″탈락과 le faire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Ⅴ. 결 론

의미에 근거를 둔 전통문법에서의 조동사의 분류는 그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의 목록에 있어서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pouvoir, devoir 등은 조동사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거의 동의어 관계에 있는 avoir la force de, être probable de, être possible de 등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순수히 통사론적 입장에서 전통문법에서의 조동사와 다른 일반동사와의 통사적 형태를 비교하

인칭주어 il의 삽입 역시 문제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좌측이동만을 인정한다는 가정에서 다시한번 생각하여 볼 문제이다.

여 보았을 때, 전혀 특이한 통사적 형태를 전통문법에서의 조동사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이 지니지 않고 있음을 Ⅱ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확제표준이론에 근거하여, 이 동사들은 다른 일반동사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동규칙에 의해서 나타난 흔적으로서의 공범주, 그리고 통제원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PRO로서의 공범주는 설정함으로써, 과거 문법이론에서의 조동사는 일반동사들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avoir, être의 경우에서는 다른 일반동사들과 전혀 통사적 형태가 다름을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 이 동사들은 그뒤에 나타나는 과거분사 형태의 동사와 하나의 동사군을 이룬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Ⅳ장에서는 avoir, être를 중심으로 하는 조동사군과 이와 결합되는 동사구의 결합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Chomsky가 제안하는 접사가 우측이동하는 치환변형보다는 동사가 접사쪽으로 이동하는 좌측이동의 설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V″탈락으로의 일반화, 그리고 le faire는 Pro-V″라는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제는 물론 불어의 조동사의 재해석과 이 조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사구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어에서의 보문소로서 나타나는 전치사 de 등의 위치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동의 방향에서 과연 우측이동은 이론적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Bibliographie

Akmajian, A. et T. Wasow (1975) "The Constituent Structure of VP and Aux", Linguistic Analysis I

Akmajian, A. et alli(1979) "The Category Aux in Universal Grammar", in Linguistic Analysis I

Borillo, A. et alli(1974) "Exercices de Syntax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A. Colin, Paris

Benveniste, E. (1974) "Structure des Relations d'Auxiliarité"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ome 2, Gallimard, Paris

Chomsky, N. (1957) Structure Syntaxique, Seuil, Paris.

(1964)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in the Structure of Language, Prentice-Hall, Englewood

(1965) Aspects de la Théorie Syntaxique

(1972) "Remarques sur la nominalisation" in *Question de Sémantique*, Seuil, Paris(1975)

(1975)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MIT.

(1977) "On WH-movement" in Formal Syntax, Academie Press.

(1981a) "Markedness and Core Grammar" in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Proceeding of the 1979 GLOW Conference, Pisa

(1981b)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Chomsky, N. et H. Lasnik(1977) "Filter and Control" in Linguistic Inquiry 8

Couquaux, P. (1981) "French Predication and Linguistic Theory" in Levels of Syntactic Representation, Foris Publication

Dubois, J.(1969) Grammaire Structurale du Français, la phrase et les transformations, Larousse, Paris
Dubois, J. et F. Dubois-Charlier(1970) Eléments de Linguistique Français, Larousse, Paris
Emonds, J.(1976) A Transformation Approach to English Syntax, Academic Press (1978) "The verbal complex V'-V in French"
Freidin, R.(1978) "Cyclicity and the Theory of Grammar" in Linguistic Inquiry 9
Grevisse, M.(1980) Le Bon Usage, Duculot
Grosse, M.(1968)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syntaxe du verbe, Larousse, Paris
(1975) Méthodes en Syntaxe, Hermann, Parie
Huot, H.(1974) Le verbe devoir , Klincksieck, Paris
(1981) Constructions Infinitives du Français, Droz Génève
Huddleston, R.(1974) "Further remarks on the Analysis of Auxiliaries as Main Verbs" in Foundation of Language 11
(1976) "Past Tense Transportation in English" in Journal of Linguistics 13
(1978) "On the Constituent Structure of VP and Aux" in Linguistic Analysis 4
Iwakara, K.(1971) "The Ausiliary System in English" in Linguistic Analysis 17
Jackendoff, R.(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MASS.
(1977) X'-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s, MIT
Kayne, R. (1977) Syntaxe du Français, Seuil, Paris
(1979) "Rightward Mov&ment in French and English" in Linguistic Inquiry 10
(1980) "De Certaines Différence entre le Français et l'Anglais" Langages 60
(1981) "Ecp Extensions" in Linguistic Inquiry 12
(1984)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Foris Publications
Nique, C. (1976) Initiation méthodiqne à la Grammaire Générative A. Colin, Paris
(1978) Grammaire Générative; Hypothèses et Argumentations, A. Colin, Paris
Pullum, G. et D. Wilson(1977) "Autonomous Syntax and the Analysis of Auxiliaries" in Language 53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 Syntax, Cambridge, London
Roy, G. R.(1976) Construction à l'Analyse du Syntagme Verbal, Klincksieck, Paris
Ruwet, N. (1967) Introduction à la Grammaire Générative, Plon, Paris
(1972) "La Syntaxe du Pronom En et la Transformation du Montée du Sujet" in Théorie Syntaxique et Syntaxe du Français, Seuil, Paris
(1981) "Montée du Sujet et Extraposition" in Grammaire des Insultes, Seuil, Paris
Sandfeld, K.(1965) Syntaxe du Français Contemporain I: Les Pronoms, Champion, Paris